



주님, 저의 하느님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

주임신부 : Joseph Juracek,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효주 (뜻쟁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에제키엘 33,7-9

화답송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송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로마서 13,8-10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복음 | 마태오 18,15-20

- 성가 | 입당성가 [62]
- 예물준비 [154]
- 영성체 [166]
- 파견성가 [286]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
김영우요셉, 강건대마리아부부	김지영 유스티나
김재윤요셉	김태경 사도요한
백대웅안드레아, 백경웅	백이백
연옥영훈	손명희 엘리사벳
낙태영훈	손명희 엘리사벳
생미사	봉헌
김택영알버트, 김혜숙마리아	익명
김현용니콜라오, 홍찬모피엘 건강한 대학생활	박신희 리나
김영희 클라라	익명
이순희 김선희	김영희
김카니 생일축하	류유리 마태아
그레고리 길마틴	김승범 프란치스코
김경련 율리다	조미카엘
강혜숙 바울라	표해심
이루리, 박창현	김애희 테클라
김기례 레지나	윤루시아
백이백아오스딩, 백승민요한보스코	가족
김스콜라스티카, 베네딕도	부모
이할로 에드몬드	이영근 마이클
이로잔 캐더린	이안나
박알버트, 아그네스	이안나
문에릭 엘리지오	문홍빈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어르신, 노약자를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주일 미사 직후 친교실**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
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한가위 연미사(9/24)신청 및 버스티켓 판매**

뉴튼 수도원행 버스티켓 판매: \$ 15, 무료탑승 불가
연미사 신청: 친교실 안내데스크/연령회담당

▶**성경공부 (BIBLE ACADEMY 2학기) 예언서 개강, 오늘**

주일반	오늘(9/10) 1pm	다미안홀 :효주수녀
목요반	9/14(목) 10am-11:20am	

▶**전례봉사자를 위한 1차교육, B팀**

일시: 오늘, 9/10 오전 11시, 다미안홀
대상: 제대봉사자, 성가대, 성찬봉사자, 독서자, 해설자
교육내용: 주일의 영성, 전례참석전 준비, 미사 아름다운제사 등
*2차 교육은 추후 공지드립니다. 담당/효주수녀

▶**본당 달력 광고 신청**

2024년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 천주교회 달력 제작
하오니, 달력에 사업체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마감: 오늘까지 9/10 \$ 150

▶**미사지향예물 접수 안내**

미사지향예물을 신청하시는 교우분들은 2023년 연초부터
실행하고 있는 다음 규정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상: 미사지향 예물에는 외상이 없습니다. 외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행정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청장소: 주일미사후
친교실 또는 사무실. 원하는 미사 신청일 한 주전 주일까지 신청가능

▶**어르신, 노약자를 위한 예비신자 교리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의 기쁨
을 전하고, 교리를 해드려,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예비신자분의 신체 기능 상태에 따라 ‘단기 출석교육’ 또는
‘직접 방문하여 교리’ 가능합니다.

▶**2024년 부활절 세례,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교리 첫만남: 2023년 10/8(주일), 교육관 3A
세례일: 2024년 3/30(토) 부활성야
교리시간: 매주일 오전 11시 *교우분 한명이 예비신자 한 명을
인도한다는 지향으로 주변에 권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찾아 나서야 한다.”
신청: 사무실 347.834.5784

▶**청년미사 관련 공지**

2번째주 토요일 청년미사 참석시 6:10pm 까지만
아래성당 문이 열립니다. security가 퇴근하여 그 이후엔
문이 잠겨 입장할수 없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모집**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교리 교사로 봉사하실 청년들을
기다립니다. 신청: 김가롤로 신부님

▶**미사 참례시 복장과 자세**

미사는 제사 의식임을 기억하시고, 예의에 어울리는
옷차림으로 미사에 참례하십시오.



▶**교우분들은 미사전 독서와 복음 읽기에 참여합시다**

미사전 독서와 복음을 미리 읽고 미사에 참례하면 말씀의 식탁에
풍성하게 차려진 말씀의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삶과 피가 됩니다.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사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더큰집
 TEL. 212-564-8238

HB HANBIT TOUR, INC.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32 St.- 33 St.) New York, NY 10001
 Tel : 347-840-2112 Fax : 212-631-8070
 hanbittour@gmail.com

백승민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

CHA PHYSICAL THERAPY
 차 물리치료 |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Hair City Elegance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사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WONJO
 New Wonjo
 212-695-5815

▶전례봉사자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9/10	김유화 데레사	이태주 레오	김미혜 이레나	김미혜 이레나	김영숙 카타리나	최예준사도요한 양지수글라라
9/17	배수아 마들렌소피에라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김승연 안나	김승연 안나	유정옥 유스티나	김승현마리아 양지수글라라

▶2024년 성지 순례단 모집

“약속의 거룩한땅, 요르단, 이스라엘”

날짜: 2024년 4월 15일~ 26일(11박 12일)

순례지: 모세구리뱀 느보산, 와디럼광야체험, 사해, 베들레헴, 주님성탄성당, 유다광야, 꿈란공동체, 예리코유혹의산, 나자렛, 주님탄생예고성당, 갈릴레아, 베드로생가, 갯세마니, 거룩한 무덤대성당, 승천성당 등. 인솔: 신부님, 수녀님 경비: \$3,700
 예약금: \$500 문약박알버트 646-201-0175 신청순: 30명 9/30까지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윤정엽 세례자 요한 신부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충고는 하기도 어렵지만 듣기는 더욱 불편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나 혹은 친구들이나 선 후배 사이에서도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속담도 있지만 충고란 것이 듣는 사람의 상태를 살피고 해야 좋은 충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충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마태 18.15). 복음은 다른 사람을 대동하거나, 교회에 알리기 전에 나에게 잘못을 한 그와 단둘이 만나라고 강조합니다.

복음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비록 나에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신앙 안에서 형제자매임을 분명히 합니다.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밖으로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애정을 지니고 남들이 모르게 그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충고를 합니다.

죄를 타일러고 충고를 해 주는 것은 형제를 대하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은 형제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 토대를 둡니다. 가까운 친구 사이는 서로 간에 서슴없이 충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면, 충고로 인해 관계에

금이 가고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가까운 친구에게는 기꺼이 충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친구를 잃는 두려움보다 친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열린 마음을 지닌 까닭입니다. 마찬가지로 단둘이 만나서 타일러고 충고하는 것은 먼저 그를 향한 열린 마음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에게 충고할 때, 율법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충고의 토대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만이 충고는 힘을 지니고 또한 효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충고는 잔소리일 뿐입니다. 충고가 법과 규정에 기초하고 있다 할지라도, 잔소리처럼 쉽게 흘러들게 됩니다. 사랑의 충고를 하기 위해 우리는 잘못된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충고하면 잔소리가 되지 않고 충고를 받아들이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그의 잘못과 부족함을 은총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에서 또 하나의 말씀은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교회공동체는 서로를 위한 기도와 사랑의 이름으로 드리는 청원을 통해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끈끈한 형제자매로 모여 서로의 모습을 올바르게 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단순한 지적이나 무관심이 아닌 사랑의 관점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한 주간 되었으면 합니다.